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성평등의 별을 찾아서

대학을 좀  
☆ 여행하는  
새내기들을 위한  
성평등 안내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 페미니즘은 다.

edit\_사람&은림

## 1. 페미니즘 :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들을 끝장내려는 운동

미국의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후크스(Bell Hooks)는 페미니즘을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들을 끝장내려는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차별주의는 사회가 여성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체제입니다.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억압들이라고 하면 전족이나 과거 응시제한 같은 전근대사회의 여성 차별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성평등을 이룬 현대에도 억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길이 여성에게 위험하다면 여성통행금지법이 없더라도 여성은 외출을 억압당한 것입니다. 남자를 잘 만나 결혼하는 것만이 여성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라면 공권력이 나서서 결혼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결혼하지 않을 자유가 억압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에도 페미니즘은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성차별적 사회는 남성 또한 억압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대한 억압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페미니즘이지,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다른 이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성징병제는 국가가 '남혐'을 하는 게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국가의 수호자로 대우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면제자, 민방위요원(구 제2국민역), 사회복무요원 등은 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2등시민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때 페미니즘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군사주의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결과적으로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병역의무를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하나의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의 여성혐오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학문(여성학)과 사회운동(여성운동),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총체입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회는 평등하지 않기에 페미니즘은 사회를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 2.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앞에서 말했듯이 페미니즘의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의 결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회적인 움직임이 그렇듯이, 페미니즘도 인간해방을 위한 운동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나름의 사회적 기준에 의해 규정되고 억압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남성은 대부분 군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남성을 군대로 보내는 병역법은 박정희 정부 때 밖으로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안으로는 산업 발전을 이끄는 믿음직한 남성-그 남성을 키우고 보호하는 현명한 어머니인 여성 구도를 만들기 위해 확립되었습니다.

남성이 데이트에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관념, 경제력 없는 남성에게 대한 무시 등도 '믿음직한 남성'에 대한 요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육아나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 할당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역시 '현명한 어머니인 여성'에 대한 요구에서 기인합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답지 않은 남자', '여자답지 않은 여자'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려는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남성답거나 여성답지 않더라도, 당신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3. 왜 이퀄리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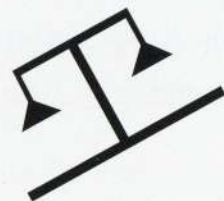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기울어졌는데 기계적 중립만으로 성평등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성차별을 현상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페미니즘의 이름과 주장은 얼핏 여성만을 편드는 듯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한 평등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성부는 있는데 남성부는 없는 것도, 총여학생회는 있는데 총남학생회는 없는 것도, gender-equalism이 아니라 feminism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성차별은 있지만 남성차별은 엄밀한 의미에서 없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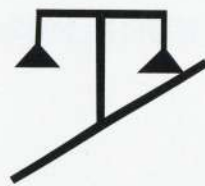
이렇게 말하면 이른바 '남성혐오'를 떠올리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트위터 같은 곳에서 '남혐'이 넘쳐나는데 어쩌서 '남혐'이 없다는 걸까요?

그러나 '남혐'은 잠깐 기분을 나쁘게 할 수는 있지만, 남성을 존재부터 배제하거나 '남성 폭력'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남성혐오'는 이런 면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는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여성혐오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혐오 타파, 여성 사회진출 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걱정처럼 여성우월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사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평등' 일까요?



## 4. 남자나 여자, 게이새끼, 병신이 아니라 ‘사람’

‘여성혐오’는 ‘misogyny’의 번역어입니다. 적어도 페미니즘 리부트가 시작되었던 2015년부터 이 번역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과 토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여성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혐오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퀴어, 아동에 대한 혐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다면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납작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사고 흐름은 상대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향합니다. 때문에 여성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페미니스트)의 경우,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페미년들’로 프레이밍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 친구에게 샤넬백과 샤넬 립스틱을 뜯어내는 김치녀가 있죠. ‘남성혐오’ 같은 경우에도, 남성 일반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이백충) 등 ‘정상적’이지 않은 남성을 향합니다. 성소수자,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을 비하하는 다양한 멸칭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배제, 혐오, 차별이 존재하면 안된다는 것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 5.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앞에서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도 억압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돌봄을 강요하는 동시에 남성에게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강요합니다. 돈을 못 벌어오는 가장이 사회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 연민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남성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남성의 평균수명을 줄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차별주의를 부수는 것은 모두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억압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위 1%가 아니라면 어떠한 약자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이는 차별과 배제로 이어집니다. 남성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과 여성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생계 부양의 책임을 더 많이 떠안는 것은 여성의 노동에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 아래에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기준들을 써 보세요. 페미니즘은 그것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벨 훅스가 말했듯이,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려는 운동입니다. 성차별주의는 여성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에 있어 남성이나 여성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은 당신을 억압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 6.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여성혐오자인가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 스스로 여성혐오자라고 당당히 외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혐은 싫지만 그렇다고 꼭 페미니스트까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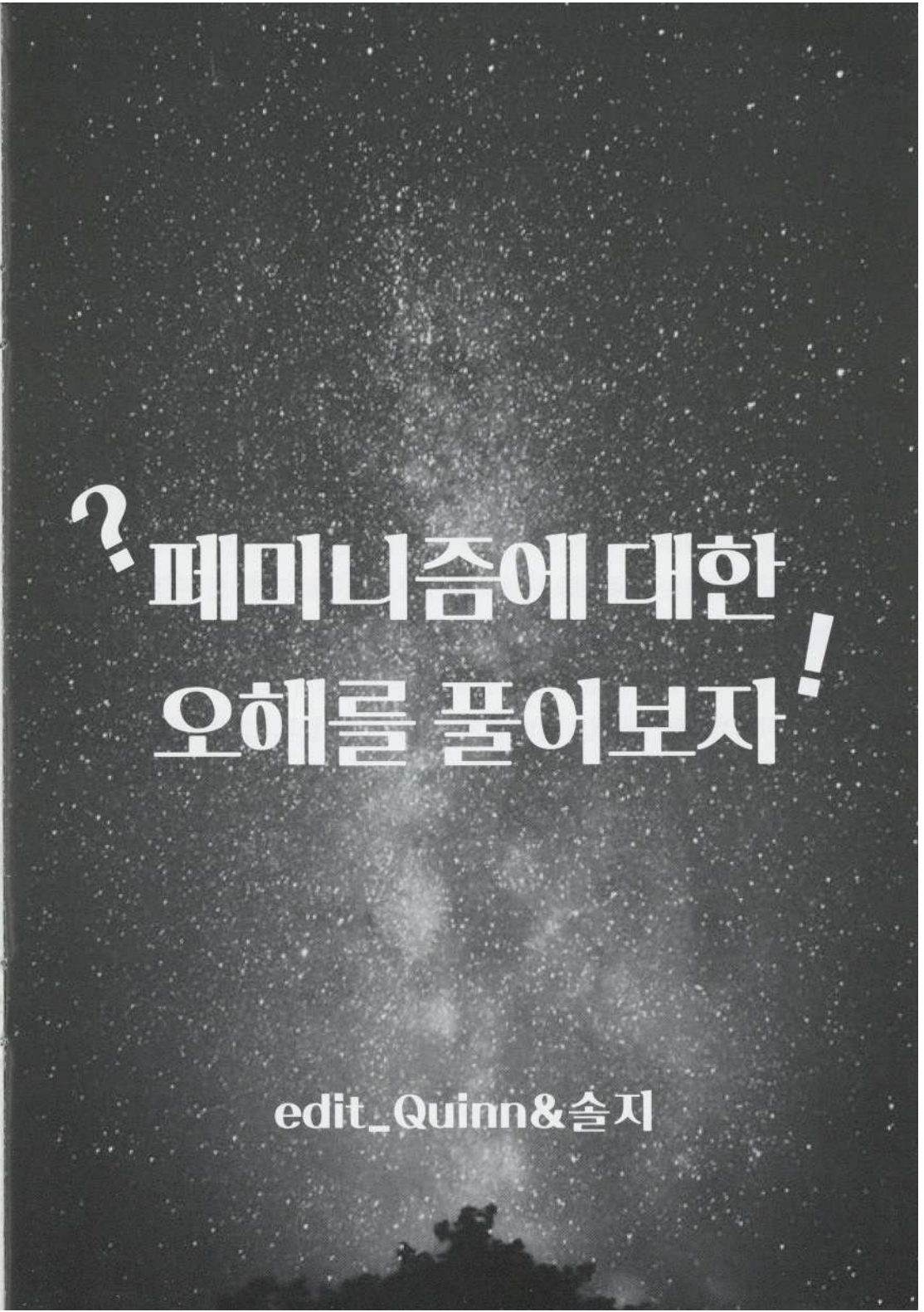
우리는 왜 여성혐오에 맞서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혐오당하는 동료시민과 연대하는 것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일제와 우리 민중 사이에 중립을 지켰던 사람, 일제와 싸우지 말고 무조건 사이 좋게 지내자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친일 부역자와 비슷하게 나쁜 타협주의자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혐오자와 혐오당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혐오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연대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여러분을 억압하는 구조를 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여성주의 정치운동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바쁜 대학생활 중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도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주의 동아리에서 활동하기, 총여학생회 등 성평등 기구에서 활동하기, 주변의 혐오발언에 문제 제기하기 등이 있지요.

페미니즘 실천이라고 해서 꼭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성차별주의 타파와 여성해방에 도움이 된다면 페미니즘 실천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edit\_Quinn&솔지

**Q. 탈코르셋을 해야 페미니스트인가요?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은 사람,  
연애하는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아닌가요?**

**A.** 페미니스트들이 '탈코르셋'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코'는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꾸밈 노동에 저항하고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깨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든, 화장을 하지 않고 후줄근한 복장으로 다니든 더 이상 성적대상화를 당하거나 '여성스럽게 꾸미고 다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즉, 내가 욕망하는 대로 하고 다녀도 그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탈코'에 동참하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당장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연애를 함으로써 우울을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아름다움과 정형화된 미의 기준(몸매, 외모)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아르바이트나 회사에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꾸밈 노동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 아닌가요?  
'미러링'이라는 이유로 남혐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폭력에 대항하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 여성 해방을 위해 페미니스트마다 추구하는 방식과 지향점은 다를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을 여성과 남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그 틀을 해체하려는 페미니스트도 있습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혐오는 영어권의 misogyny에서 번역된 말로, 언뜻 보면 '혐오'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인 싫어하는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본래의 뜻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모든 언어와 행동'입니다. 여성혐오는 여성을 향한 폭력과 배제, 일반화와 성적대상화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차별 등 광범위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남성 혐오에 해당하는 것은 '취향적 불호'의 사전적 뜻이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미러링은 여성에게 가해졌던 차별적 표현과 평가를 성별만 바꿔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회로 하여금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성의 특징을 일반화한 '한남'이라는 단어의 등장으로, 만연하게 쓰이던 '김치녀', '맘충' 등이 여성혐오 단어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폭력적이고 강한 언어를 쓰는 이유는 그러한 언어만이 더 강하고 견고한 남성중심사회에 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노조와 같은 사회적 운동은 불평등한 구조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언어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성의 공격적인 말투 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면, 과연 그러한 잣대가 다른 사회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Q. 저는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경험한 기억이 없어요.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예민하고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여성혐오는 사회 전반적이고 유교 사상처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본인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는 여성혐오가 가득합니다.

당장 지하철에 걸린 광고는 여성의 신체를 평가하고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하여 신체에 대한 자기 혐오를 하게 만듭니다.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남성은 나이와 외모(안경, 화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었거나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래 가사나 뮤직비디오에서는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화 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복은 기능적이고 편한 데 비해 여성복은 라인이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복보다 기능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일상 속의 성차별을 느끼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첫 시작입니다.



# 알고보면 쓸데있는 신기한 페미니즘

edit\_송소영&휴지

KT

오후 3:21

77%



연애고민해결사 펭펭  
보통 즉시 응답



안녕, 나는 연애고민 해결사 펭펭이야  
펭귄수호신의 힘으로 고민을 해결해줄게!  
너는 어떤 고민이 있니?

나는 지금 사귀지 3달된 여자친구가 있어.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럽지만, 난 남자치고 진짜 겁이 많은 편이야.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가 공포영화를 보고 싶어 해서  
같이 보러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팝콘을 었었어....  
하... 정말 한심한 것 같아. 근데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야....

여자친구에게 자주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 속상해.  
어떻게하면 남자답고 멋있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럼 그 고민의 답을 함께 찾아보자  
맘속으로 숫자를 하나 고른 다음 말해줘!

골랐어!

펭귄 수호신의 대답은 "남자답게를 버리고 당당해져라"야  
남자가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건  
성별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생각인걸 알고있니?

남자라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강해야 한다는건  
반대로 여자는 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전제하게 되지  
이렇듯 성 고정관념 안엔 다른 고정관념이 함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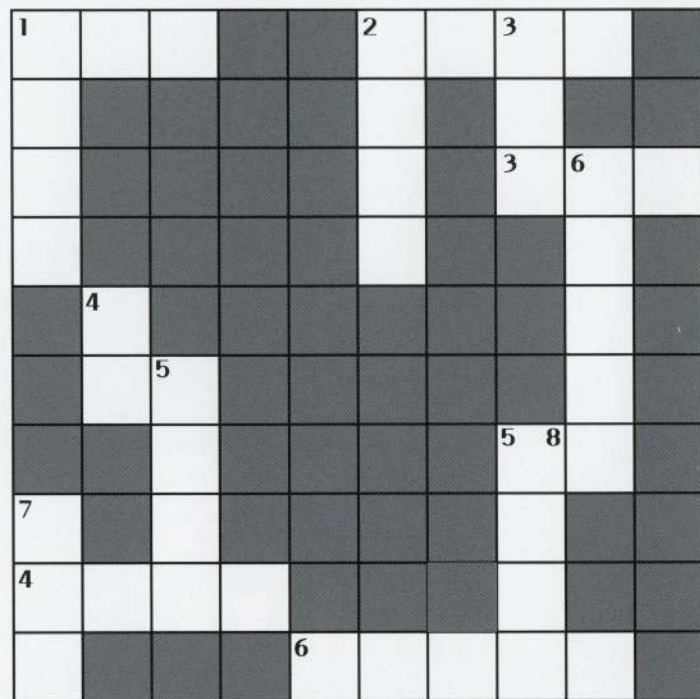
게다가 성 고정관념은 여성/남성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편협한  
시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타인을, 그리고 너 자신까지  
잘못된 잣대로 평가하게 만들곤하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거야  
겁이 많은 많지 않은 당당해지는거지!  
'남자답게, 여자답게' 는 잊어버리고, '나 답게' 살도록 하자!  
여자친구도 스스로 소중한 여기는 너를 더 좋아할 거야 ;D

고마워, 펭펭아!!

## 십자말풀이 Quiz



### [가로말]

1. '남성이 남성다운 것'을 강요하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 남자다움에 갇힌 남성들의 문제를 다루는 토니 포터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
2.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인식적 틀.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처음 제시한 개념. 예: OOOO를 전환하다
3. 현실에 존재하는 성차와 성차별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 올바른 ○○○감수성은 건강한 성 평등 의식의 기반이 된다.
4. 사회의 여성혐오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학문(여성학)과 사회운동(여성운동)의 총체이다.
5. 일부터 꾸며내는 거짓 목소리, 또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높고 여린 목소리를 말한다.
6.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운동과 운동가들을 이르는 말. 투표를 뜻하는 영어 단어와 여성 접미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세라 캐브런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 [세로말]

1. 영국 잉글랜드 서북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 이 도시의 유명한 축구 구단에 박지성 선수가 입단했음
2. 집안의 재산을 모두 써 없애고 자기 몸까지 망침
3.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 서로의 ○○○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4. 생물학적 성별을 말하는 '섹스'에 맞서 성별이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단어
5. 여성혐오를 뜻하는 영어이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 무시, 배제이다
6.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정하거나 범할 수 없는 고상하고 존엄한 성질
7. 온라인 페미니스트를 일컫는 말이다. 여성주의 커뮤니티나 SNS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8. 가부장, 즉 연장자이고 경제력을 가진 남성이 지배권을 가지고 가족을 통솔하는 가족/지배 형태

## 알고보면 쓸데있는 신기한페미니즘 : 영화&책 추천

페미니즘과 관련있는 '코르셋'과 '미러링', '생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준비했다!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세 편의 영화추천! 세 편 모두 넷플릭스/왓차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가한 주말 저녁, 맥주 한 캔과 함께 감상해보면 어떨까?

### 1. '임브레이스' (Embrace, 타린 브럼핏 감독, 호주, 2016)

: 감독이자 주인공인 타린 브럼핏이 자신의 '비포/애프터'사진을 올리고 난 후 일어난 반응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그 사진의 '비포'는 출산 후 변해버린 몸에 대해 자책하다가 바디빌더 대회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한 모습이었고, '애프터'가 현재 자신의 편안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이다.



### 2. '거꾸로 가는 남자' (I Am Not an Easy Man, 엘레오노르 포리아트 감독, 프랑스, 2018)

: 왓차의 영화소개 -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던 남성 우월주의자 다니엘. 어느 날 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깨어난다.' 남자가 뒤바뀐 세상에 대한 상상을 영화를 통해 경험해보자.



### 3. '피의 연대기' (김보람 감독, 한국, 2017)

: 편의점에서 올리브O에서도 생리대를 사면 무조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봉투에 담아주는 경험,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것 같다. 자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살아가면서 적어도 400번을 겪어야 하는 생리이지만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인 여성의 몸과 생리에 대해서 터놓고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이다.



## [교과서st 책이 궁금하다면?]

### 1.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 동일한 제목의 TED 영상(30')

: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인 스웨덴 청소년의 교육 필독서이면서 250만이 본 화제의《TED》강연을 책으로 만들었다. 《타임》에서 뽑은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된 저자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딸린 부정적 뉘앙스를 떨쳐내고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말한다.



### 2. 여성학(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 여성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 최신 담론과 쟁점을 소개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페미니즘, 좀 더 알고보고 싶다면?]

### 1. 젠더와 사회

: 국내 연구자 15명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 쓴 젠더 연구서. 젠더에 관한 모든 오해와 의문에 답한다.

### 2.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 저자 벨 훅스는 여자라고 무조건 페미니즘 정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가부장제 사회에 사는 그 누구라도 성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페미니즘이 반대하는 것은 '남자'가 아닌, 남성중심주의임을 거듭 강조한다.

##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여성캐릭터의 매력이 뽐뽐하는 영화들!

### Tip [백델 테스트란?]

영화의 서사가 얼마나 성평등적인지를 측정하는 테스트. 1985년 미국의 여성 만화가 엘리스 백델이 고안했다. 영화에서 ①이름을 가진 여자가 두 명 이상 등장하고 ②아들이 서로 대화해야 하며 ③대화 내용이 남자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통과하는 것이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테스트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영화가 이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백델테스트가 곧 페미니즘 영화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 핵전쟁으로 멸망한 22세기. 독재자 임모탄 조가 살아남은 인류를 지배한다. 폭정에 반발한 사령관 퓨리오사는 인류 생존의 열쇠를 쥔 임모탄의 여인들을 탈취해 분노의 도로로 폭주를 시작한다. '퓨리오사' 등의 유행어를 만들어냈던 '겔크러쉬' 맛집 영화이다.



### 2. 암살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세 명을 암살작전에 지목한다.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펼쳐진다. 극중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운은 '남자현' 독립운동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 3. 서프러제트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 여성이라는 이름 앞에 무너져버린 정의와 인권 유린의 세태에 분노하게 되는 주인공은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 [성별? 젠더? 퀴어? 개념부터 궁금하다면?]

### 1. LGBT+ 첫걸음

: LGBTQIA+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시야를 무한히 넓혀줄 수 있다.

### 2. 페미니즘을 쿼어링!

: 이분법적 고정관념에 갇힌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기본 개념을 페미니즘 이론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책이다.



## [논란이 되는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깊이 알고 싶다면?]

1. 도란스 총서 -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등 :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주제들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담긴 책들이다.

### 2. 한국, 남자

: 사회학자 최태섭이 30대, 남성, 사회학 연구자의 시선으로 지금 페미니즘의 물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 남성들에 주목한다.

## 편집자들의 소감

“

그동안 생각에만 머물렀던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_사람

페미니즘을 함께 배우고, 여러분의 대학을 더  
성평등하게 만드는 데 이 책이, 제 글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매칠동안 서포터즈 분들과  
상의하고 열심히 만들었던  
안내서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_Quinn

처음 도전해보는 거라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모로 아쉬움도 남지만 그것대로  
좋은 경험이었겠죠? 페미니즘에 대해 터놓고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저에게 이번 안내서제작은 굉장히 유익하고 새로운 경험  
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방법이나 생각은 다양  
하다는 것. 그리고 배울 것도 많아 제 자신이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내서를 읽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를받고 고민이 해결이 되거나, 오해가 풀리거나, 조금  
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

“

작년에 모두의 페미니즘  
활동을 하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자  
다짐했었다.\_솔지

2019년의 첫 활동을 성평등 안내서와 함께 해서, 나의 다짐처럼  
대학사회 혹은 개인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 하는일을 한 것 같  
아서 일단은 뿌듯하다. Q&A를 작성하고 만화를 그리는 내내 무언  
가 형용할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공존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이 글을 읽을 사람의 반응이 걱정되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막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새내기/재학생이 이 안내서를 읽고 내  
가 했던 걱정만큼의 영향을 받아 페미니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도 풀렸기를 바란다.

”

“

모두의 페미니즘에서 안내  
서를 제작하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_송소영

특히 대학이라는 여행의 출발선에 선 지금 페미니스트로  
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 뜻깊었  
습니다. 활동 이후로도 경희대학교 새내기로서 평등한  
대학 사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다짐했습  
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안내서를 읽는 당신에게도 '새내  
기'를 위한 성평등 안내서가 좋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  
다. 각자의 자리에서 페미니즘을 위해, 성평등하고 행복  
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연대합시다.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성평등의 별을 찾아서

제목 대학을 여행하는 새내기를 위한 성평등 안내서  
지은이 사람 은림 Quinn 솔지 송소영 휴지  
펴낸이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서포터즈  
2019.03.07. 초판 1쇄

**모두의  
페미니즘**